

안보통일센터

北 탄도미사일 발사(8·29) 관련  
동향 및 정책 제언

2017. 8. 29



SECURITY FOCUS

안보포커스



재단법인  
여의도연구원  
THE YEUIDO INSTITUTE

## 1. 현 황

- 오늘(8.29) 오전 5시 57분경 북한은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
- 사거리 2700여km, 최대고도 550여km로 29분간 일본 상공 비행 후 북태평양 낙하
- 현재 한·미 軍당국이 제원 분석 중이며, 사거리로 볼 때 5월에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(IRBM) 화성-12형으로 추정
  - ※ 지난 5월 발사된 화성-12형은 당시 최대고도 2111km, 비행거리 787km로, 정상각도 발사時 최대 5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

## 2. 의 도

- ① (한·미 연합군사훈련 UFG 대응성격) 3일前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함께 군사적 대응 시위 차원
- ② (괌 타격 가능성 시사 목적) 북한은 8.9(수) 괌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·견제하고, 미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괌 주변 30~40km 해상수역에 ‘화성-12’ 네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

- ③ (주일미군 기지 타격 능력 과시) 특히 일본이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 출발지인 駐日 미군기지를 타격 능력 과시 의도
- ④ (안보리 고강도 제재 등 對국제사회 반발)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핵·미사일 개발의 마이웨이 계속 의도
- ⑤ (기술력 진전 차원)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종말유도기술 미확보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

### 3. 전 망

#### ○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논의 급물살

- ※ 한·미·일 공동 요청으로 8.29(현지기간) UN 안보리 긴급 회의 개최 예정

#### ○ (북한) 핵 동결과 제재 해제 교환 행보 모색 예상

- 작년처럼 정권수립일(9·9절)을 즈음해 6차 핵실험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벼랑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
- 아울러, 북한은 핵 능력을 입증을 통해 1차적으로 핵 동결과 제재 해제를 교환하기 위한 행보 가능성

- (일본) 1998년 8월 대포동-1호의 일본 열도 통과 후 일본의 강력 반발 사례 감안時 일본의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 추진
- (미국) 군사옵션을 바탕으로 깐 고강도 제재 및 北 탄도미사일 요격 추진 전망
  - 합법·불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은 무조건 제재하는 미국의 ‘전면적’ 세컨더리보이콧 가능성
  - 신뢰성 있는 군사옵션을 바탕으로 깐 경제봉쇄 수준의 고강도 대북교역 차단
  - 북 탄도미사일 요격 추진 가능성
- (한반도) 올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냉각 불가피
  - 남북관계의 장기경색 또한 상당기간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
  - 문재인정부의 대북 구상 차질 불가피

#### 4. 제 언

- (국회內 ‘북핵대책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’ 구성) 국회內 상설특위에서 ‘한반도 핵균형’을 위한 모든 북핵 대응수단 신속 논의, 도출

## ○ 북한 핵·미사일 대비전력 확충 對정부 촉구

- 미군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및 한·미 공동운영
- 사드 배치 완료
-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인근지역 상시 순환배치
- 4축체계(선제-킬체인, 방어-KAMD, 응징-KMPR, 핵방호) 조기 구축
-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조기 추진
- 北 SLBM 대비,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

## ○ 文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조급증과 과욕 견제

- 북한의 핵·미사일 고도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에도 불구하고, ‘한반도 新경제지도’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대별되는 文대통령의 ‘新베를린 구상’ 실행에 관한 조급증과 과욕 견제 필요